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1995. 6.

서 재 진 (북한연구실장)
남 궁 영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전 현 준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정 영 태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김 성 철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目 次

I. 問題提起	1
II. 公式承繼 지연 요인	2
1. 北韓의 공식적 說明: 김일성에 대한 哀悼	2
2. 건강 異狀	4
3. 對內外 위기구조	6
4. 北·美關係	7
III. 承繼體制 鞏固化를 위한 준비 동향	10
1. 對美 核協商을 통한 국제고립 탈피	10
2. 카리스마의 轉移 및 偶像化 작업	11
3. '인덕정치'를 통한 社會統合	13
4. 軍部の 지지 확보	15
5. 經濟的 業績 성취를 위한 노력	16
IV. 公式承繼 전망	20
1. 승계 時期	20
2. 승계 方法	22
V. 政策展望	24
1. 대외정책	24
2. 대내정책	26
3. 대남정책	27
VI. 정책적 考慮事項	29

I. 問題提起

- 후계자로 지명되어 20여년간 승계를 준비해 온 김정일이 김일성 死後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당규약과 헌법상 최고지위인 黨總秘書 및 國家主席職에 취임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의도와 관련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遺訓統治’라는 명분으로 김일성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통치이념, 경제문제, 핵협상 등의 부문에서 金正日 승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김정일의 공식승계가 지연되는 배경 및 김일성 死後 김정일의 권력공고화를 위한 조치들을 분석한 후, 김정일의 공식취임 시기 및 김정일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여 효율적인 對北政策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II. 公式承繼 지연 요인

1. 北韓의 공식적 說明: 김일성에 대한 哀悼

◦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하여 金正日의 공식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哀悼와 이에 대한 김정일의 배려 때문이라고 선전하고 있음.¹⁾

◦ 북한은 처음에는 100일간의 애도기간을 지킨다는 說을 유포하다가 100일이 지난후에는 3년 또는 5년의 애도기간을 지킬 것이라는 說을 유포하고 있음.²⁾

1) 북한은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평양방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음. “그분께서는 최고지도자로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로서 혁명과 건설사업 전반을 영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나 국가 주석으로 추대되시는 일만은 미루어 오십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그토록 잊지 못해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以民爲天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시며 인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십니다.” 평양방송, 「김정일혁명력사강좌 162회」, 1995.1.15.

2) 1994.12.14 독일의 「푸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신문은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이 김정일의 승계지연 이유는 3年喪 풍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함. 또한 1995.1.14~21까지 북한을 방문한 릴리 前 駐韓美大使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1995.1.27) 김정일의 3년상 후 등장가능성을 시사하였음. 또한 금년초 평양을 방문한 조총련 간부들은 “김정일 동지는 상주가 5년 동안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통예법이므로 추대식을 서두르지 말라

- 그러나 김정일 승계지연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설명은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名分일 가능성이 높음.
 - 북한 주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애도는 자발적인 의지라기 보다는 權力 空白期 동안 김정일이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조장하는 측면이 더 강함.
 - 북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구호를 만들어 김일성에 대한 애도를 부추기고 있음.³⁾
- 김정일은 애도기간을 자신에 대한 이상화를 강화하고 동시에 밑으로부터의 수령추대운동을 전개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 김일성에 대한 충·효 행위를 김정일은 공식취임 이후 자신에 대한 충·효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⁴⁾

고 하셨다”라는 내용을 당중앙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증언함. 「內外通信」(週刊版), 1995.2.23 참조.

- 3) 평양방송의 「김정일혁명력사강좌 162회」 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김일성에 대한 애도를 부추기고 있음.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받들어 모시려는 것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가장 절절하고 가장 확고한 심성입니다. 그분의 그러한 신조와 철석같은 신념에 의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가 나오게 되었으며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생불멸할 것이다」 제1,2,3,4부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 4) 이와 관련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일성과 김정일의 一體性 강조를 위해 “김일성은 곧 김정일이고 김정일은 곧 김일성”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음.

○ 또한 김정일은 ‘遺訓政治’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식승계 시기까지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김일성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새로운 정책 제시 대신 김일성 노선의 견지, 즉 ‘遺訓’⁵⁾관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유훈달성을 住民動員의 전술적 구호로 사용하고 있음.

2. 건강 異狀

○ 김정일 공식취임 지연의 본질적 요인은 건강문제,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상황, 北·美關係의 지연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⁶⁾

5)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 ‘유훈’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로동신문」, 1994.7.19에서였음. 김일성 ‘유훈’은 대내적으로 단군릉 완공 및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관철, 대외적으로 對美 관계개선을 통한 안보유지, 대남차원에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기초한 통일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6) 김정일의 공식취임이 지연되는 까닭은 내부의 權力鬭爭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북한은 1995.2.7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김정일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선포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 장악이 확고함을 시사하였음.

○ 김정일은 위장병·심장병·당뇨병·만성 신부전증 등 성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다음 몇가지 情況的 증거를 통하여 추측되고 있음.

- 김정일은 김일성 영구조문(1994.7.11, 13), 영결식(1994.7.19), 추도식(1994.7.20) 이후 김일성 사망 100일 중앙추모회(1994.10.16)까지 약 3개월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

-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일 때도 안색이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 특히 단군릉 시찰시(1994.10.29) 얼굴에 화장을 했고 색안경을 끼는 등 病色을 은폐하는 흔적이 관찰되었음.

- 또한 1994.8~9경 재미교포의 도움을 받아 북한 의학전문가가 訪美하여 50대 성인남자(김정일로 추정됨)의 病歷記錄書를 미국의 사에게 제시하여 진단을 받았다고 하며, 1994.10 오진우가 신변 치료차 프랑스 파리 라에벡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김정일의 병력기록서를 소지, 프랑스 의사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함.⁷⁾

○ 중국의 李鵬 총리가 1994.10 한국을 방문할 무렵 강택민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 거부의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외교부 부부장 송호경이 1994.8.30 중국을 방문하여 중

7) 中國國際問題研究所 高級研究員 陶炳蔚의 증언, 1995.1.18.

국의 요인에게 김정일 비서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 국가주석 취임이 늦어진다고 말했다고 함.⁸⁾

3. 對內外 위기구조

- 金日成 사망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핵사찰 압력 등에 기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음.
 -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유지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 경제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나진·선봉 지역에 經濟特區를 설정하였으나 서방의 의면으로 별 진전없이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으며,
 -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아노미상황에 빠져 있었음.

- 또한 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은 최대 당면과제였던 核査察 문제와 관련 과도기적 상황에 있었음.
 - 북한의 IAEA 탈퇴 선언(1994.6.13)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의 對北制裁 결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8) 金子秀敏(毎日新聞 외신부 부부장), “중국이 본 북조선,” 「諸君」, (1995.3).

- 카터·김일성 회담이 성사됨으로써 北·美 3단계 고위급회담이 재개되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김정일로서는 국제적 고립탈피를 위한 적절한 계기와 경제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마련되는 등,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遺訓統治'라는 명분하에서 과도기적 위기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北·美關係

○ 김정일의 승계를 지연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北·美關係의 진전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미관계가 가시적인 단계까지 진전되어야 북한은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고, 동시에 金正日 시대의 새로운 대내외 정책 방향 정립이 가능함.

○ 북한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 시대를 출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미국과의 關係改善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미국의 주도에 의하여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정치적으로 봉쇄당해 왔음.

-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북한 경제관계 規制措置를 취하였으며(1950.6.28), 이후 다양한 형태의 법적 규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포괄적이고 엄격한 제재조치를 유지하고 있다.⁹⁾
- 제네바 합의문 이행의 차원에서 1995.1.20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4개항의 조치를 발표함.¹⁰⁾

○ 따라서 김정일은 미국과 실질적인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公式承繼 時點으로 설정했을 것으로 분석됨.

-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김정일은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화해의 제

9)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미국이 북한을 ①적성국가, ②공산국가 내지는 맑스-레닌주의국가, ③국제테러국가, ④IAEA 안전협정을 위반한 핵무기비보유국가, ⑤인권침해국가, ⑥미사일기술확산 활동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각각 결정되었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29, 1994), pp. 21~36 참조.

1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4개항의 조치는 다음과 같음. ①통신 및 정보: 미·북간 전화 및 통신 연결을 위한 거래 허용, 개인 여행 및 기타 여행관련 신용카드 사용 허용, 언론인들의 사무실 개설 허용, ②금융거래: 미국에서 발생 또는 종결되지 않는 거래의 청산을 위한 북한의 미국 금융기관 거래 허용, 북한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 資産의 凍結 解除, ③기타 무역: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수입 허용, ④「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기타 단계적 조치: 워싱턴과 평양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활동을 위한 거래 허용, 미기업의 대북 경수로 지원·대체에너지 공급·사용후핵연료 해체 등 사업참여에 대한 적용법규에 따른 사안별 검토. US Department of State, "Eas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January 20, 1995.

스쳐를 보내는 한편, 자기 시대를 출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북·미간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된 이후 김정일이 공식취임하게 되면 북한 주재 미국 연락사무소 대표가 미국을 대표하여 취임행사에 祝賀使節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음.
- 대내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자신의 지도력 발휘에 따른 중요한 성과로 내세우고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

Ⅲ. 承繼體制 鞏固化를 위한 준비 동향

- 북한은 김정일의 공식취임을 연기하고 있는 동안 취임을 지연시켜왔던 장애들을 극복하고 承繼體制的 공고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1. 對美 核協商을 통한 국제고립 탈피

- 북한은 美國과의 핵협상을 매개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북한체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 韓·美同盟關係 약화, 北·日修交 등을 유도해 냄으로써 김일성 이후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한 대외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북·미 제네바 합의(1994.10.21)를 통하여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건설, 대체 에너지 제공, 상호 연락사무소 교환설치 합의 등의 성과를 얻었음.
- 10·21 제네바 北·美合意, 1995.6.12 경수로 협상 타결을 성공적으로 도출해냄으로써 김일성 死後 최초로 김정일의 대외적 업적을 부각하였음.

○ 동시에 북·미 경수로 협상 타결로 제네바 합의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만큼 북한은 對日關係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보다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동안 일본과의 수교협상 문제가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연계되어 왔는 바, 6.12 北·美 경수로 협상 타결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쌀 제공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수교문제가 본격 추진되고 있음.

2. 카리스마의 轉移 및 偶像化 작업

○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父子間 카리스마의 轉移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의 지도자적 자질을 부각시키는 우상화 작업도 강화하고 있음.

- 이같은 시도는 “아버이 수령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이고 지도자 동지는 곧 위대한 수령이다”는 구호에서 극치를 이룸.

○ 북한은 김일성 死後 김정일의 승계가 역사적 필연임을 주장하기 위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소위 ‘3대 위인’ 논리를 제시하였음.

- 특히 김정숙의 역할과 관련하여, “김정숙의 불멸의 업적은 김정일을 낳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을 마련한 것”¹¹⁾이라고 주장함.

11) “김정숙 사망 45주년 추모사에서 한 최영림(정무원 부총리)의 보고,” 「중앙방송」, 1994.9.22.

- 이는 김일성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을 강조했던 종전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서, 김정일의 후계체제와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또한 북한은 김정일의 천재성과 효성심 부각, 김일성 傾斜筆體 모방운동, 생일(2.16)의 '민족최대의 명절' 제정¹²⁾ 등 그에 대한 이상화를 강화하고 있음.
 - 김정일이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기 위해 마르크스·엔겔스·레닌의 저서를 3년만에 독파했다고 그의 천재성을 선전함.¹³⁾
 - 김정일이 김일성의 傾斜體 글쓰기를 이어받았다고 하면서 '서예의 극치' 라고 선전하는 동시에 '따라배우기'를 강조하고 있음.
- 한편, 金正日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기 위해 북한은 대외관계에서의 진전을 그의 영도력에 의한 것으로 묘사하고 또한 대내적으로 31년간의 당사업을 통해 지도자의 경륜을 쌓았다고 주장함.
 -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미·북한간 핵협상 타결 관련 「보도」(1994.10.20), 한민전 중앙위의 지지성명(1994.10.29), 조총련 중앙상임위의 지지성명(1994.10.30), 최고사령관 추대 3주년 기념

12) 중앙인민위원회 정령(1995.2.7)은 “김정일이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쌓아올린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고 빛내이며 영원히 기념키 위한 것”이라고 그 제정 이유를 밝힘.

13) 「평양방송」, 1994.10.22, 31.

보고대회(1994.12.23)에서의 군총참모장 최광의 보고 등도 제네바 합의문을 이끌어내고 클린턴 대통령의 「담보서한」을 받아낸 것은 김정일의 현명한 영도라고 선전하였음.

- 또한 북한의 언론매체는 그의 당사업시작 31주(1995.6.19)를 기념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주는 절세의 위인 또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라고 묘사¹⁴⁾하고 있음.

○ 4.28~29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新일본프로레슬링주식회사」 공동주최로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체육 및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 국제적 고립탈피를 위한 전환적 계기로 삼고, 평양축전을 국제사회에 선전하여 平和的 國家로서의 이미지 쇄신과 김정일의 권력이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對外에 홍보함.

3. '인덕정치'를 통한 社會統合

○ 김정일 승계체제는 金日成의 통치이념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면모도 보이고 있는 바, 김정일이 소위 '인덕정치' 및 '광폭정치'를 행하고 있다고 선전함.

14) 「평양방송」, 1995.6.19. 김정일에 대한 수령 호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1991년부터 사용되어 왔음.

- 인덕정치란 한마디로 정치지도자가 계급출신별 차별없이 인민을 믿음과 사랑으로 포용한다는 뜻임.

○ '인덕정치'의 주된 의도는 인민대중의 성원 여부를 階級的 土臺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상과 행동양식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社會 統合에 역점을 두려는 것인 바,¹⁵⁾ 이런 의도는 최근 방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정일혁명력사강좌」에서 잘 나타남.¹⁶⁾

- 북한은 김정일이 일찌기 당과 주민간의 일체감 제고를 위해 현재의 사상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침 아래 '복잡군중'을 포용한다고 선전해 왔음.

- 복잡군중도 思想敎養에 의해 개조되면 핵심군중이나 기본군중처럼 혁명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15)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의 주민성분조사를 실시하여 출신성분별로 직종과 직위에 차별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북한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1958~1960)을 실시하여 불순분자를 색출·처단하거나 강제 이주시킨 이래, 주민재등록사업(1964~1967)을 통해 백만 적위대 무장을 위해 주민성분을 분류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3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하는 사업(1967~1970)을 전개하였으며, 다시 주민중 검열사업(1980.1~1980.12) 아래 공민중 대조 및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 및 통제를 가한 바 있음.

16) 「평양방송」, 1994.11.5. 김정일의 계급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내려진 시기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건대 1980년대 중반인 것으로 보임.

4. 軍部の 지지 확보

- 권력승계가 非制度化된 사회에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승계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필수요건인 바,¹⁷⁾ 김정일이 군 경력이 없다는 점과 권력서열 2위였던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사망(1995.2.25) 등으로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개최된 각종 행사에서 인민군 次帥들의 서열을 상승시켰는데 이것은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김일성 추도대회(1994.7.20)에서 김일성 사망 이전 40~100위의 서열에 불과했던 호위국장 李乙雪, 김일성종합군사대 총장 崔仁德, 사회안전부장 白鶴林, 국방위원 金奉律, 인민무력부 부부장 金光鎭, 당 민방위부장 金益鉉 등 차수 6명이 서열 22~27위를 차지하였음.

17) 중국의 경우 鄧小平이 자신의 체제를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군사권력의 핵심 직책을 차지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당 중앙위 10기 3차 회의(1977.7.16~21)에서 그는 여러 다른 직책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및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을 차지하여 華國鋒의 지위를 위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결국 華를 축출하고 자신의 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음. 鄧이 華로부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접수한 이래 이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보유했던 공식적인 직책이 되었음. John Gardner, *Chinese Politics and the Succession to Mao* (New York: Holmes & Meier, 1982), p. 125 참조.

- 김일성 사망 1백일 추모회(1994.10.16) 때는 백학림, 김봉클, 김광진, 김익현이 17~20위로 부상하였음.
- 또한 김정일은 실무부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초급 지휘관들을 면담함으로써 하층 군부의 지지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991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이후 주도해왔던 「군·민일치운동」을 통해 전 주민의 軍에 대한 지원을 경쟁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김정일은 1995년 들어 총참모장 최광, 대장 이봉원, 상장 남상락 등을 동행하고 214부대(1.1)를 방문하였으며, 291부대 여성 해안포 중대(2.5), 해군 155부대(2.6), 해군 853부대(6.16)를 차례로 시찰하였음.
- 인민군 제9차 선동원대회(1.28) 및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3.15~16) 참가자들을 면담·적려하는 등 군부에 대해 최근 특별한 관심을 보였음.

5. 經濟的 業績 성취를 위한 노력

- 김정일은 공식적 권력승계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실질적 경제성과를 보여야 하는 바, 1993.12.8 당 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 및 김일성 1994년 新年辭에서 제시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독려하고 있음.

- 북한은 1995년 신년사(당보·군보·청년보 명의의 공동사설)를 통해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음.

- 또한 '3대제일주의'를 김일성의 遺訓으로 삼아 당창건 50주년인 1995.10.10 이전까지 조기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식량생산 증대를 관철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은 1994.12.19 평양 만경대구역 협동농장을 國營農場으로 개편한데 이어 평남 숙천군내 20여개 협동농장을 통합하여 「군농업연합기업소」를 설립하는 등 협동농장의 국영농장 전환을 위한 단계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¹⁸⁾

○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1995.5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을 일본에 파견, 일본이 보유중인 쌀 잉여분을 일정량(60~80만톤), 일정기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쌀도 “아무런 전제와 정치적인 조건없이 원조하거나 대여한다는 제의가 있다면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음.¹⁹⁾

18) 북한은 평양시내 국영 및 협동농장의 「분조장회의」(1995.1.10~11) 및 이례적인 전국 리단위 농근맹 위원장회의(1995.2.1~2)를 개최하여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 및 생산조직 개편 등을 포함한 농업문제 전반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였음. 통일원, 「월간북한동향」(1995.1), pp. 32~33.

19) 「日本經濟新聞」, 1995.5.27.

- 이에 따라 1995.6.21 남한의 쌀 15만톤 對北 무상지원에 대해 적으로 합의하였음.
- 북한이 현 시점에서 식량확보에 나선 것은 식량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된 면도 있으나 김일성 사망 1주기(7.8)나 정권창건 일(9.9)에 즈음하여 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를 준비하기 위한 정치적 일정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김정일이 1984년부터 추진한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金正日의 경제적 업적을 과시하고 지방공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생필품 증산을 독려하고 있음.²⁰⁾

○ 북한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과 다각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무역제일주의에 입각하여 나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投資誘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김정일 리더쉽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GM, MCI(전화회사), 종합용역회사 스텐던 그룹, US 워싱턴 뱅크 등을 포함한 11개사로 구성된 미국기업대표단을 북한에

20)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 10주년(1994.8.3)을 맞이하여 북한의 언론매체는 증산운동이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10년 동안 소비품 생산은 3.5배 성장했으며 소비품을 생산하는 작업반, 가내작업반, 부업반이 46,500여 개로 증가했다고 선전하였음. 통일원, 「월간북한동향」 (1994.8), pp. 16~18.

초청(1995.2.14~18)하여 나진·선봉지구의 통신망 설치 등 각 분야의 經協 가능성을 타진하였음.

- GM社は 북한에 자동차공장을 건설, 러시아와 중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 특히 스텐턴 그룹은 지난 訪北에서 선봉 소재 정유공장 및 화력발전소 가동에 참여하기로 북한과 이미 합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²¹⁾

21) 미국 스텐턴 그룹 Browne 사장의 美上院 에너지위원회에서의 증언, 1995. 2.19.

IV. 公式承繼 전망

1. 승계 時期

- 김정일의 공식승계 시기는 지금까지 공식승계를 지연시켜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소멸 또는 약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임.
-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 승계지연의 명분으로 선전되었던 哀悼期間이 지난 시점에서 승계할 가능성이 높은 바, 북한은 최소한 김일성 사망 1주기인 7월 8일을 기점으로 애도기간을 종료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김일성의 시신을 미이라로 처리하여 금수산 의사당에 영구보존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김일성 장례식이 1년여 만에 완료되는 단계에 있음.²²⁾
-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승계가 가능할 것이나, 최근에 김정일이 군부대를 방문하는 빈도가 잦

22) 북한은 6.12 노동당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연명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실테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발표하여 금수산 의사당을 금수산 기념궁으로 바꾸어 기념궁안에 김일성의 생전 모습을 그대로 안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아지고 있는 바, 이것은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김정일의 승계 시기는 北·美關係 개선의 실질적인 계기가 될 연락사무소 설치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연관이 있을 것인 바,

-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명시적인 時限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북·미 전문가회담 (워싱턴 1994.12.6~10; 평양 1995.1.31~2.3)에서 연락사무소의 位置選定 문제를 제외하고는 영사 및 주요 기술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 1995.6.12 경수로 협상에서 북한과 미국간에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시점은 7월 말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불 때 애도기간 종결, 건강회복, 연락사무소 설치시기라는 세 변수를 고려하면 승계 시기는 7월 8일 이후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태국 주재 북한대사 김도섭은 1年喪이 지난 후에 김정일이 국가주석직에 추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1995.2.3).

- 7월 8일이 지난 시기 중 공식승계의 적절한 시점은 8.15 광복절, 9.9 공화국 창건기념일, 10.10 당창건 50주년 기념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 따라서 승계 시점은 7월 8일 이후 10월 10일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됨.

2. 승계 方法

- 金正日이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직 모두에 취임할 것이며 순서의 차이가 있다면 당총비서직에 먼저 취임할 것으로 보임.
 - 그 근거로는 김정일 취임 祝歌가 방송이나 공식행사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내부조직에서 연습형태로 보급되고 있는데 「축하의 노래」 가사 1절은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을, 2절은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음.
 - 축하의 노래 1절은 “7천만 우리동포, 마음을 합해서 오늘에 이 감격을 노래하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 노동당 총비서 추대를 받았다. 즐겁다 축하하세, 민족의 대경사, 축하합시다.”²³⁾
 - 북한은 1995.6.17 「로동신문」에 “김정일을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자”라는 제하의 개인필명 논설을 발표한 바 있음.²⁴⁾

23) 「산케이신문」, 1995.4.2.

24) 우리당을 앞으로도 영원히 수령님의 당으로 빛내어 나가기 위해서는 김정일 동지를 변함없이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셔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김정일 동지는 우리 당이고 우리 당은 김정일 동지이다. 「로동신문」, 1995.6.17.

- 수령의 칭호도 김정일이 승계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근거로는 김정일이 이미 “위대한 수령”이라고 호칭되고 있음.²⁵⁾
 - 북한 각지에서 김일성 상징물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체내용을 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라는 문구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로 바뀌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 만세”라는 구호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수 만세”로 바뀌었음.
 - 또한 최근 북한은 김정일에 대하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안고 탄생하여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신 절세의 위인,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라고 호칭하였음.²⁶⁾

25) 「内外通信」(週刊版), 1995.6.1.

26) 「평양방송」, 1995.6.19.

V. 政策展望

- 김정일의 공식취임 이후 북한은 대외정책 면에서는 실용주의 노선을 모색할 것이나, 대내 및 대남정책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 대외정책

- 북한은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함과 동시에 경제난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체제의 공고화를 추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북한은 美國과의 관계개선, 日本과의 수교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은 그동안 핵협상의 지연으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西方의 기술과 자본의 도입이 지연되었으나,
 - 북·미 경수로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러한 정책 목표 실현에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 이것은 북한이 대외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實用主義的 노선으로 이행할 것을 의미함.

○ 「북·미 기본합의문」에 근거한 미국의 대북한 貿易規制 緩和措置 (1995.1)²⁷⁾ 이후 점차적으로 제재조치가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제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협상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戰後 배상금 원조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보임.

- 북한과 일본은 1992.11 이래 중단된 수교회담을 2년 4개월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1995.3.28)를 발표하였음.²⁸⁾

- 김용순은 이 「합의문」에 대해 “조일관계에서 근본문제인 과거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와 재난에 대해 사죄·보상하고 국교정상화를 해야한다는 원칙적인 요구를 명백히 한 것이다”라고 설명함으로써 경제적 보상이 중요한 과제인 하나라는 점을 밝혔음.²⁹⁾

27) 미 국무부는 1995.1.20 통신 및 정보, 금융거래, 무역(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기타 단계적 조치 등 4개항의 對北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였음. US Department of State, “Easing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January 20, 1995.

28) 김일성 사망 직후 북경 접촉을 통해 양국은 수교를 위한 교섭재개를 논의한 바 있음. 무라야마 일본 총리의 국교정상화 교섭재개 선언(1994.9.30)으로 일본의 수교의지가 다시 가시화되었으나, 이같은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본은 「북·미기본합의문」 타결 이후 1995년 1월과 2월 제3국에서 북한과 비공식 접촉을 가진 바 있음. 「東亞日報」, 1995.1.7, 3.10.

29) 「조일회담재개를 위한 합의서」 채택 관련 김용순의 기자회견(1995.4.5).

2. 대내정책

○ 북한은 대외적 개방의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상교육 강화에 주력할 것임.

- 김정일의 이름으로 발표된 글에서 “여러나라에서 사회주의 집권당과 사회주의 제도가 붕괴된 역사적 교훈은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사회주의 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한다”고³⁰⁾ 주장하고 있으며,

- 김일성 死後 두번째로 발표된 김정일 명의의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³¹⁾ 제하의 논문에서도 사회주의의 변질은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思想戰線이 와해되면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된다고 지적함.

○ 김정일은 주석과 당총비서직을 모두 장악하고 김일성이 확립하였던 唯一指導體制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김일성의 권력구조를 그대로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 김정일의 카리스마 구축을 위한 이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방송」, 1995.4.6.

30)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로동신문」, 1992.10.10.

31) 「조선중앙방송」, 1995.6.21.

- 集團指導體制로의 이행 등 지도체제의 개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소유제도의 개혁이나 시장제도의 도입과 같은 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미 설치한 나진·선봉 자유경제역지대의 확대나 신의주, 남포 등에 새로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며,

- 부분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것은 개혁적인 차원이 아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숨은 개혁(hidden reform)의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임.

3. 대남정책

○ 북한은 대외관계에서의 실용주의 노선에도 불구하고 남한 排除戰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10.21 북·미 제네바회담 합의를 핵문제의 전면적 해결에 관한 북·미 사이의 회담으로 못박음으로써 남한을 지속적으로 배제시켜 왔으며,³²⁾

32) 북한의 강석주 대표는 北·美 제네바 합의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을 철저히 핵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에 관한 조·미 사이의 회담이다.

- 美·日 관계개선의 진전으로 「미·일제국주의」 위협을 매개로 한 내부체제통제 수단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대남 적개심을 한층 더 조장함으로써 김정일 유일지배체제 공고화에 활용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진전시켜 나가면서 남한배제 및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離間戰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경수로 협상과 對北 쌀 제공 협상과정에서 보듯이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심한 체제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김정일 공식승계 이후에도 북한은 당분간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대남비방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북한은 政經分離의 원칙에 따라 남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접촉과 經協은 다소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큼.
- 북한은 최근의 대북 쌀 제공 협상에서 나타낸 태도를 향후에도 견지할 것으로 보임.

여기에 북남대화 문제가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남한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음.

VI. 정책적 考慮事項

- 김정일 공식승계 이후에도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한 當局間 對話를 가급적 회피하고 대남비방을 계속할 것인 바,
 - 당분간 남북관계 진전은 불투명하므로 한국은 단기적 차원의 실적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의 對南 誹謗은 대내용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음.

- 북한이 南北頂上會談에 호응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나,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對北 우호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北·美 핵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통하여 북한은 지속적으로 북·미관계개선에 치중하는 한편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한국은 韓·美 공조체제를 통하여 우리측의 입장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北·美間 平和協定은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침략했음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보상을 전제로 하므로 북·미간 평화협정의 문제점과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의 당위성을 미국에 설득시킬 필요가 있음.

- 南北經協은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이므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부문인 바,
 - 민간자율에 기초한 경협을 추진하여 남북간 신뢰구축의 기초를 조성하고,
 - 민간주도에 의해 남북경협의 기틀이 마련된 후에 당국간 대화를 통한 경협의 制度化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과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值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4)

〈資 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統一情勢分析 95-06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年 6月 日

發行日 1995年 6月 日
